빛과 파편의 서방들

Aldo Poblete Varas
2026년 11월 9일

해변의 모래, 빈 탄피, 처음에는 현실에, 그다음에는 허구에 깃들었으나 역사에는 한 번도 깃든 적 없는 이야기의 파편들. 텍스트들, 데리다에서 클로소프스키까지. 패션은 젠트리피케이션되고 있었고, 디지털 뱀들은 도덕을 어기는 일은 더 작게, 기술 종교에 대한 구독은 더 크게 하라고 요구했다.

지옥의 원동력. 기계들은 승리와 전정 감각의 만남에 어울리는 형식으로 찾아왔다. 신체성은 문자 그대로의 우주를 고풍스러운 리듬에 맞춰 흔들며 나아갔다. 거친 북소리에 박자를 맞추는 그리스의 정령. 흩어지는 결정들, 마법에 걸린 왕자에 대한 사탄적 은유. 텍스트 안에는 옛 방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존재가 산다. 회개하지 않는 자의 사악한 힘. 젊은 희망의 급진성, 가르침과 전승된 경험의 죽음.

발타사르 그라시안이 우리 몸짓의 통사적 가장자리에, 얼룩 속에, 총구의 부드러운 테두리에 있다. 고칠 수 없는 데이터가 중앙아시아의 어느 도시를 가리킨다. 춤은 버틴다. 병사들은 가소성과 수렴을 향한 자신들의 꿈을 담기에 창이 충분히 넓기를 바란다.

창 너머, 축적, 복원. 희생 속에, 그리고 온갖 생명과 온갖 폭력의 근원인 귀부인의 살롱에 박아 넣은 근원적인 예술 작품들. 무한의 발작, 타락한 천사의 꿈.

런웨이에서 하나의 문화 전체가 제 정체를 드러낸다. 그 문화는 무너지고 있다고 다른 모두를 믿게 하며 살아남고 팽창한다. 무너지지도 쇠퇴하지도 않는다. 왕자와 공주들은 푸른 음료를 한 모금 마시고 싶어 한다. 그곳에서 고통은 실재하고 신들은 여전히 잠복해 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결정하는 벌거벗은 짐승들.

음악은 항아리에서, 그리고 선실에서 흘러나온다. 지성이 가능하게 하는 영원한 불은 안개와 수직 운동도 허용한다. 그 운동은 많은 이들을 섬망으로, 더 정확히는 현기증으로 데려간다. 다른 이들은 수평의 시로 데려간다. 그곳에서 비의적인 것이 전력의 배분 자체와 만나고, 방정식은 도식적 형식을 벗어던지고 위상학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범람과 예법의 예술. 미시마가 마지막 외침을 보고 첼란이 시간의 차가움을 본 곳에서, 긴 세기는 우리를 탬버린과 진흙으로 돌려보낸다. 씨앗과 금기 사항. 바로 그 세기가 개의 놀이와 음악 재생기의 기분을 우리에게 가져다주었다. 우리는 주의를 조율했고 다른 것을 발견했다. 마지막 몇십 년, 지성의 거대한 봉기에 앞선 몇십 년. 불안의 마지막 순간, 분열의 마지막 순간. 어째서 모든 일이 이렇게 일어났을까?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 말들 또한 이미 존재하고 이미 숨 쉬고 이미 팽창하는 모든 것의 휘발성 반영이다. 어느 한 개인의 의지도 이 말들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

떨림, 빛과 파편의 서방들, 거대한 집단적 당혹의 눈에 감춰진 속도들. 귀족들의 시선이 땅을 내려다본다. 거기에는 기어 다니며 먹을 것의 냄새를 맡지만 손대지 않는 존재가 있다. 읽을 줄 몰라서 먹을 것에 손대지 않는다. 그것은 삶을 이용하고 다른 이들을 이기게 하고 싶어 한다. 그들이 이기게 하라. 그들이 이기려면 태어나야 할 것이 태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승리는 모순처럼 보인다. 아름다움은 신들이 가장 사랑하는 딸이며, 신들은 땅에 사는 존재들에게서 그 빛을 숨기려는 비루한 자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성들은 설교를 들으며 소리 없이 웃고 울었다. 그동안 철학자는 새 제자에게 말했다. “이 모든 것이 전날 밤 진수성찬을 지나치게 많이 먹은 천사의 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 그렇다면 이런 공적인 문제를 조금 덜 심각하게 받아들여도 되겠지.”

자기 다정함의 노예가 된 철학은 동물들 앞에 노출된 채로 남았다. 이제 조금 덜 야만스럽고 인간 동료들보다 조금 덜 열등한 동물들. 그들은 언제나 왕이나 외교관 사이를 기어 다니며 쓴 포도주나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술이라면 무엇이든 갈망한다.

우리는 우위를 얻었다. 사실이다. 이제 십 년 전만큼 장례의 강 가까이에 서 있지는 않다. 하지만 아직 위험 속에 있다. 더는 위험 속에 있지 말자.